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2017년 5월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첫 번째 입주하게 되었음
- 이사 후 위층의 층간소음이 특히 야간시간(밤 23시~새벽 2시경)에 들리는 소음으로 고통 받았으며,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와서 구르며 뛰는 소음에 고통 받기도 했음
- 소음은 주로 발뒤꿈치로 쿵쿵 찍는 소리, 물건을 끌거나 떨어뜨리는 소리, 크게 ‘쿵’하는 소음과 함께 온 집안이 울리는 소리 등이고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벽을 타고 오는 진동으로 귀마개를 해도 소용이 없었음
- 소음의 강도는 82데시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새벽녘 까지 계속되는 소음에 잠을 설치며 고3 수험생인 아이의 학습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음
- 위층에 소음자제 부탁에도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있다’, ‘소리가 커도 생활소음이다’, ‘생활소음은 참아야 한다’, ‘너는 쉼 구녕을 천정에 대고 사냐’, ‘너는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는 정신병자다’. ‘이사 가라’고 하는 등 개선할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니가 이사갈 때까지 괴롭히겠다’면서 고의로 소음을 내고 괴롭히는 등 대화의 가능성 전혀 없음
- 생활지원센터, 112신고, 전문상담사 방문에도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적반하장 태도에 엘리베이터 탈 때 매번 긴장과 매일 불안감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신경안정제 처방과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집을 비우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음
- 조만간에 이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도 만만치 않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이 아파트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임대를 할 수도 없고 하여 피신청인들이 크게 깨우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 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의 주장

- 2017년 5월18일 날 906호에 입주해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었음
- 입주함과 동시에 바로 슬리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말경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그 이후 슬리퍼를 신어도 소음이 들리나 싫어 한 여름 내내 양말을 착용하고 지냈으며, 계속되는 806호의 신고로 까치밭까지 들고 생활했음
- 아래층의 신고한 날짜와 주장을 보면 그 날에 저희들이 집을 비우거나 의자에 앉아 TV시청, 잠을 자는 시간이었음
- 이후 잦은 인터폰, 문자, 세대 간 전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음
- 공동주택에 생활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생활소음(서인 걸음걸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가 집을 비운 날에도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806호는 말하고 있음
- 추후에는 협박죄로 저희 가족 셋을 모두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며, 2018년 1월 12일 가족 모두 법원의 혐의 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지만 그 동안의 고소 과정에서 2~3개월 동안 가해자 신분으로 억울하게 살았으며, 그로 인해 806가 과장 또는 허위로 주장하는 바에 의견서에 자세히 진술하였음
- 저희는 아무런 피해도 806호에 주지 않았는데 10개월 동안 가족 모두 경찰서를 3번이나 불려나가 조사받았고 혐의 없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니 또다시 분쟁위에 신고하여 끊이지 않고 저희를 괴롭혀 개인적인 시간조차 모두 뺏겨버리고 살았음
- 우리의 억울함과 정신적인 피해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더 이상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라며,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거지역으로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00역이 위치해 있으며, 왕복 5차선의 신평로 옆에 위치한 주거환경으로 층간소음의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 분쟁조정 신청사건임

나. 당사자 주거 건물 현황

- 규모 : 지하1층, 지상 11층
- 전용면적 : 109.6 m^2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2017.4.

다. 층간소음 상담센터 방문상담 결과

- 상담기관 : 서울시층간소음상담실
- 방문일시 : 2017.10.13(금) 10:00~12:10
- 상담내용 : 관리사무소 측에 중재 협조, 일상생활에서의 소음발생 자제 및 항의방문 자제 등 윗층 및 아래층에 공동체 생활의 소음을 줄이는 배려와 이해의 마음을 갖는 생활 당부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층간소음 피해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 자료 및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려 한 마음과 노력 정도를 토대로 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함

4. 판 단

- 신청인의 층간소음 피해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의 대응방법에 있어서 과한 언사 등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보다 감정적인 언사와 신청인의 항의에 보복성 소음을 일으켰다고 진술한 사실 및 소음도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가 주·야간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집을 비워두는 기간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거이전의 경우 다양한 변수에 의해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이사 비용에까지의 확대피해는 소음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사비용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000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1분 등가소음도 주간[(43dB(A)) , 야간[(38dB(A))] 및 최고 소음도 주간[(57dB(A)) , 야간[(52dB(A))] 를 초과한 신청인 000 등

3명에게 배상 한다.

- 배상액에 최고 소음도와 등가소음도 및 주간과 야간 소음도가 모두 초과하여 층간소음 피해액에 각각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415,700원, 재정신청 수수료 4,230원을 추가하여 합계 1,419,930원이다.

6.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